

근대역사도시 목포, 역사공간 보존·활용 속도

건축자산 보수·정비계획 완료...스토리텔링 콘텐츠 추진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 10채 매입 문화예술공간 재구성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3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은 만호·유달동 일대 11만4000여㎡로 지난 2018년 국내 최초로 점 단위가 아닌 면 단위 국가등록문화재(제718호)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목포진부터 근대의 관공서, 주거, 상업 시설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이 밀집해있는 지역이다.

노동 운동, 소작 쟁의, 항일운동 등 일제강점기 당시 민중의 저항이 펼쳐진 공간으로서 3대항 6대 도시였던 과거 목포의 역사가 응축돼 있어 '지붕없는 근대역사박물관'으로도 불린다.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자산을 보수·정비하고 역사문화공간을 재활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다.

목포시는 사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자산을 보수·정비에 재활용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옛 목포세관 본관 터와 참고 전경. <목포시 제공>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부터 근대문화자산 아카이브 구축 용역과 근대건축자산 정밀실측 용역도 실시 중이다.

기록화한 데이터베이스를 다각도로 스토리텔링해 목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할 예정이다.

근대역사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올해 안에 원도상 일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한 국·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안) 수립 용역과 홍보 등 실용적인 안내를 위한 종합활용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제도적·행정적 장치 뿐만 아니라 근대역사문화자산의 실질적인 활용방안도 차근차근 마련해가고 있다.

목포시는 근대건축자산 전수조사와 문화재정 및 자원위원회 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공간 내 공적 활용 가능한 건축물 총 10채를 매입했다.

호남 최초 민족계 은행으로서의 상징성을 지닌 '옛 호남은행 목포지점' (등록문화재 제29호)과 근

대 가장 변화했던 조선인 가계 '옛 갑자옥 모자집', 1950년대 건축양식을 엿볼 수 있는 해안로의 '옛 대광전자 2층 상가건물' 등이 대표적이다. 옛 갑자옥모자집을 비롯한 매입 건축물들도 건축 당시 원형 복원을 목표로 보수·정비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목포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거리 곳곳에 근대적 경관의 야외공간을 조성해 휴식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 삼학도크루즈 운항 재개 내달부터 하루 4차례

'낭만 항구' 목포의 해상관광 유람선 '삼학도 크루즈'가 4월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목포삼학도크루즈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2월 중단했던 삼학도크루즈 운항을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삼학도크루즈는 오전 8시30분과 11시, 오후 2시와 4시 등 하루 평균 4회 운항하고, 예약이 있을 경우 오후 8시에도 운항할 예정이다.

삼학도 선착장을 출항해 갯바위·평화광장·대불부두·목포신항만·현대삼호중공업·장좌도·목포대교·인어동상 등을 거쳐 삼학도로 돌아오는 1시30분 코스다.

크루즈 측은 탑승객에 대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제,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고, 탑승 정원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철저히 대비한다.

유람선 삼학도크루즈는 지난해 6월 취항하면서 목포해상게이볼과 함께 목포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2월 중단됐다.

삼학도크루즈는 국내 최대 96인승의 최신행 유람선으로 공연장과 연회장, 야외행사장, 전망대 등을 갖추고 있다./목포=박종배 기자 pjb@



해변에서 필라테스 "코로나 블루 안녕"

지난 19일 올해 첫 운영한 '몸&힐링 해양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해변 필라테스를 즐기고 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완도군은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몸&힐링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일 올해 첫 시작한 해양치유를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에 관광객과 지역주민 40여명이 참여했다.

청정한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전문강사의 지도에 따라 매트, 짐볼, 작은공 등 소도구를 활용한 필라테스를 진행했다.

필라테스는 해양에어로졸이 폐 깊숙이 들어가도록 호흡하며 해풍을 피부로 느끼고 뇌에서 알파파를 활성화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백색 소음인 파

도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듣는 프로그램이다. 지역 특산물인 황칠과 비파씨로 만든 차와 청산도 보리가 첨가된 청산도 보리커피, 동백꽃으로 만든 동백 음료를 시음하고 매생이, 다시마, 톳, 미역귀 등 해조류가 골고루 들어간 호떡과 어묵을 시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7월까지 총 35회 진행된다.

노르딕워킹과 필라테스, 명상 등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4월 16일과 17일에는 명상이 진행됐다.

관광객·지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순 30명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제2 스포츠타운 조성

삼산면에 축구장·야구장 2면씩...2023년 말 완공

해남군이 삼산면에 제2 스포츠타운을 건설하는 등 기반 조성하고 함께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한다.

해남군은 국비 43억원 등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삼산면 평활리 일원에 제2스포츠타운을 건설한다고 22일 밝혔다.

11만3506㎡ 면적에 축구장 2면과 성인 야구장 2면 등을 갖춘 제2 스포츠타운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군민 생활체육 활동과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스포츠타운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말까지 마치고 내년에 착공, 2023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

해남군은 또 오는 2023년까지 우슬체육공원 인근에 복합체육문화센터를 완공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86억원 중 국비 51억원을 지원받는다. 복합체육문화센터는 연면적 3250㎡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복합시설로 장애인 특화형 수영장과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 복합 공간을 마련해 지역민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밖에도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을 비롯해 우슬경기장 관람석 리모델링 및 조명타워 설치, 우슬소프테니스장 비가림시설 등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도 힘을 쏟고 있다.

해남군은 전국 대회 및 전지훈련을 통해 연 평균 14만3000여명이 방문하는 스포츠 마케팅 강군으로 손꼽힌다. 우슬 경기장을 중심으로 10분 내 거리에 스포츠 시설이 집약돼 있어 선수들은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기초체력훈련은 물론 경기까지 치를 수 있다. 이 같은 강점으로 지난해 전남도 전지훈련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명령관 해남군은 "늘고 있는 생활체육과 스포츠 마케팅 수요에 맞춰 제2스포츠타운 조성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스포츠인들의 해남 방문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완도군, 연안 바다목장 조성 꼬막·바지락 종패 방류

완도군은 어장 환경변화 등으로 자원량이 감소하는 연안 어장에 바다목장을 조성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0억원을 들여 해양 특성을 고려해 수산 생물 서식 공간 제공·체계적 관리로 수산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상지는 군의면 동부리 원동리에서 대창2리까지로 약 147ha 규모로 조성한다.

완도군은 지금까지 3년 간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꼬막 모패, 바지락 종패 매입·살포와 단지 조성 예정지 모래 살포·경운, 환경 개선, 자원량 파악 및 환경 조사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꼬막 치패·바지락 종패 방류와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모래 살포 등을 추진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바다목장 조성을 통해 자원 회복, 체계적인 어장 관리로 안정적인 수산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6차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세상과 소통하는 희망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2021학년도 1학기

광신대학교 교훈!!
칼빈주의 신학의 보수와 선포
성령충만으로 세계의 복음화
건강한 신앙의 생활화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나
독특하고 차별화된 우리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학교

■ 강좌안내

강좌명	강사명	요일	강의시간	교육비	개강일
맨손통증기적 (긴장된 근육이완법)	김선미	월	19:00~21:00	200,000	03.29
놀이큐레이터사	김성덕	월	19:00~21:00	200,000	03.29
시니어 뇌보력지도사	노은아	화	19:00~21:00	200,000	03.30
캘리그라피	송태정	월	13:00~15:00	200,000	03.29
서각예술(전통 현대)	송태정	월	19:00~21:00	200,000	03.29
치유와 회복을 위한 동아리 (비폭력대화와 동아리 활동)	김상훈	월	19:00~21:00	200,000	03.29
성경적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Awesome Life Awesome Family)	김지연 외	금토	10:00~15:00	350,000	04.02 04.03
원예치료사 과정	김영은	목	19:00~21:00	150,000	04.01
약용식물자원관리사 과정	양차열	금	19:00~21:00	150,000	04.02

* 광신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출석률 2/3이상인 경우에만 수료 가능), 강좌 내용에 따른 민간 자격증 발급
* 교육비 할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www.kwangshin.ac.kr) 참조
* 폐강(등록인원이 7명 미만일 경우)되는 강좌는 "정산후 전액환불"

신청기간 2021년 3월 10일(수)~29일(월)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원기념중앙도서관 1층 교학처
전화접수: 062)605-1023 / FAX 062)572-0264

지원자격 수강을 원하는 일반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학력 제한 없이 등록금 납부 순으로 모집합니다.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은 매년 정규과정(1학기/2학기)과 방학특강(하계특강/동계특강)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방학특강은 학기수업에 연계된 과정으로 일부 과정만 개설됩니다.
2021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 3월 네번째 주부터 6월 첫 주까지 10주간 특별운영합니다.
(3월 29일 ~ 6월 5일)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 36